



합의적 질적연구 방법을 적용한 고등학교 학생선수의 진로교육 개입 성과 탐색

An Investigation of Career Intervention Outcomes from High School Student–Athlete By Using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Approach

| | |
|--------------------|--|
| 저자 (Authors) | 한시완 Han-Si Wan |
| 출처 (Source) | 한국여성체육학회지 30(2) , 2016.6, 17–36 (20 pages)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Physical Education and Sport for Girls and Women 30(2) , 2016.6, 17–36 (20 pages) |
| 발행처 (Publisher) | 한국여성체육학회 Korean Association of Physical Education and Sport for Girls and Women |
| URL | http://www.dbpia.co.kr/Article/NODE06700570 |
| APA Style | 한시완 (2016). 합의적 질적연구 방법을 적용한 고등학교 학생선수의 진로교육 개입 성과 탐색. 한국여성체육학회지, 30(2), 17–36. |
| 이용정보 (Accessed) |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165.194.42.*** 2016/10/10 13:50 (KST)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자료를 원저작자와의 협의 없이 무단게재 할 경우, 저작권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The copyright of all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original author(s). Nurimedia is not responsible for contents of each work. Nor does it guarantee the contents.

You might take civil and criminal liabilities according to copyright and other relevant laws if you publish the contents without consultation with the original author(s).

합의적 질적연구 방법을 적용한 고등학교 학생선수의 진로교육 개입 성과 탐색*

한시완** (중앙대학교)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고등학교 학생선수의 진로교육 개입 성과를 탐색하는데 있다. Whiston(2001)의 진로교육 개입 성과 도식에 기초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나는 학생선수들의 진로교육 의미를 탐색하였다. 학생선수 12명에게 개인별 심층면담을 실시하고 자료 수집을 하였다. 합의적 질적연구(CQR)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고등학교 학생선수들의 진로교육 개입 성과는 3개 영역, 9개 범주, 28개 하위범주로 구분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인지적 성과 영역에서는 자기이해, 직업이해, 가치인식, 목표의식 요인이 주요요인으로 나타났다. 행동적 성과 영역에서는 정보탐색, 접촉시도, 학업수행으로 정서적 성과 영역에서는 정서안정, 개입만족 요인이 주요요인으로 도출되었다. 또한 인지적, 행동적, 정서적 성과는 개인적, 환경적 영역에서 상호작용적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고등학교 학생선수에게 이루어지는 진로교육 개입 성과와 진로교육 개입의 실제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 이론적 분석과 함께 실제적인 체험의 반영은 고등학교 학생선수의 진로교육 과정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나아가 역동적인 관점에서의 진로교육 연구 활동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글주요어 : 고등학교, 학생선수, 진로교육 개입 성과, 합의적 질적연구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4S1A5B8043862)

**한시완, 중앙대학교, E-mail : siwanhan@naver.com

I. 서 론

현재 진로교육은 텍스트 중심의 진로교육(예: 진학상담 및 진로관련 심리검사 실시, 교과목을 통한 진로교육, 진학지도, 진로관련강연 등)뿐만이 아니라 체험 중심의 진로교육 방법(예: 직업 체험, 현장견학 프로그램 등)까지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김재철, 황매향, 김아영, 2011; 박완성, 2007; 장원섭, 2007; 최윤정, 2012; 한상근, 2009). 이러한 진로교육의 개입은 다양한 성과유형으로 나타나며 진로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Whiston, 2001). 진로개입(career invention)의 개념을 Spokane과 Oliver(1983)는 '개인의 진로발달을 향상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어떤 처치나 노력'으로 정의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조작적 정의에 따라 진로개입을 이해하고, 진로상담, 워크숍 및 프로그램, 진로체험(현장실습, 인턴십)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진로교육의 개입으로 보았다. 여기에서 무엇을 성과로 정의할 것인지는 중요하다. 개입 이후 성과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성과의 내용은 연구과정의 핵심이기 때문이다(Lambert & Vermeersch, 2008). 진로교육 개입 성과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진로교육 개입 성과에 대한 내용은 메타분석 연구결과에서 추론해 볼 수 있는데(Brown & Ryan Krane, 2000; Oliver & Spokane, 1998; Whiston, Brecheisen, Stephens, 2003; Whiston, Sexton, Lasoff, 1998), 진로교육 개입 성과 내용을 다룬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Whiston(2001)이 제안한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진로지식과 기술(career knowledge & skill)의 범주는 인지적인 성과로 진로 지식과 기술의 향상을 평가함으로써 구체화할 수 있다. 자기 자신과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증가되었는지 등으로 확인한다. 두 번째, 진로행동(career behavior)의 범주는 진로관련 행동에서의 변화를 의미한다. 직업정보 탐색과 관련된 학업수행의 증가 등으로 확인한다. 세 번째, 정서 및 신념(sentiments & beliefs)의 범주에서는 학생들의 태도, 신념, 지각 그리고 정서적 반응 등을 확인한다. 학생들이 진로개입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의 정서적 반응이나 자기효능감과 같은 신념의 변화로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역할기능(effective role functioning)의 범주는 학생들이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진로문제가 재발했을 때 자신의 진로를 조정할 수 있고 나아가 공동체로서의 사회공헌 역할을 수행하는 능력을 포함한다. 위의 다양한 성과변인들은 다음과 같은 특성들과 관련되어 있다.

진로교육의 효과는 개인 특성 중의 하나인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남녀의 차이를 밝혀주는 연구들은 사회가 요구하는 남녀의 성역할, 그것을 인식 및 수용하는 개인의 성역할 태도, 그 태도를 가지고 특정한 행동으로 반응하도록 내면화한 성역할 정체감이 진로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한다(길임주, 2005; Hoffman & Torres, 2001; Hollinger, 1984; Taylor, 1979). 또한 진로발달은 매우 복잡한 과정이기 때문에 진로와 관련된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발달적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Whiston, 2001).

환경특성으로는 가정환경과 학교환경을 구분할 수 있는데 가정보다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진로교육 개입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보고하고 있다(이지연, 2007). 가정환경에서의 가계소득은 진로를 계획하고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나타나고 있으며 (Arum & Hout, 1998; Teachman, Paash, & Carver, 1996), 부모의 양육태도 및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유지할수록 진로에 대한 탐색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etterson, 2000; Lee & Hughey, 2001; Poulter, 2006). 학교환경에서는 교사와의 친밀도, 교우관계 같은 기능적인 부분이 진로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고 있다(Misbah, Gulikers, Maulana, & Mulder, 2015; Sharf, 2006).

최근 학생선수의 진로 교육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으로 크게 증가되고 있다(유정애, 2014). 그러나 여전히 학생선수들이 선호하는 직업이 지도자로 편중되어 있다(손환, 홍은아, 2014). 학생선수는 운동위주로 생활하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를 접할 기회가 없다보니 코치, 감독, 체육교사 등 지도자와 관련된 직업을 많이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학생선수들의 진로에 대한 관심과 지원 그 자체로 우리나라 학생선수들의 진로교육의 내실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정작 학생선수들은 대회참여 및 훈련 등으로 인해 진로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임새미, 이근모, 2015).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학생선수들의 시간 및 환경적 여건을 고려하여 진로교육 개입이 이뤄져야 한다. 내용적으로는 먼저 학생선수들에게 엘리트

선수로서 성공하기까지 극심한 경쟁이 있다는 현실 (이규일, 허창혁, 류태호, 2011)과 부상이나 경쟁에서의 낙오 등으로 예기치 않은 운동중단을 하고 체육이 아닌 진로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유정애, 2014; 이양구, 권형일, 2015)을 알려주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학생선수들은 글자 그대로 학생이라는 신분을 우선시 하도록 인식시켜 학습에 소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진로교육의 핵심은 학생들이 저마다 지니고 있는 성장가능성을 인식 및 탐색하고 이를 충분히 계발시켜 학생이 원하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데 있으므로 학생선수들의 흥미와 적성을 찾아주고 이를 고려하여 운동외의 진로에 대한 정보까지 제공해줘야 한다. 특히 고등학교 시기는 형식적 교육의 마지막 단계로 졸업 후 진학을 할 것인지 취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 진로선택을 해야 하는 단계이다. 스스로 자신과 환경을 인식하고 흥미와 능력을 직업 세계와 연결지어 진로를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적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김봉환, 2009; 이건남, 2013; Sharf, 2006; Super, 1983).

고등학교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진로교육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국내연구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의 내용은 진로결정 관련변인 연구로 나타났다(김현태, 김지태, 김은성, 2015; 문호준, 이승희, 2010; 박종진, 박상섭, 백두환, 2015; 이도운, 김지태, 2014; 이승희, 전태준, 2006; 이양구, 권형일, 2015; 정성현, 2005). 이외에 진로발달 관련변인 연구(장순웅, 김지태, 김영준, 2013), 진로상담 및 정책에 관한 연구(손환, 홍은아, 2014; 안창식, 2004), 진로준비행동에 관한 연구(임새미,

이근모, 2015), 진로성숙과 관련된 연구(김중만, 이상렬, 조준현, 2010), 진로유형에 대한 연구(권민정, 유정애, 2014), 진로경로와 관련된 연구(한태룡, 정영린, 서희진, 2010), 진로개발역량을 다룬 연구(권민정, 유정애, 전선훈, 2013) 등이 나타났다. 이처럼 고등학교 운동선수의 경험이 체육관련 직업군으로까지 연계되도록 도움을 주려는 노력과 더불어 진로교육이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진로교육 개입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실증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고등학교 학생선수에서 제공되는 진로교육 개입 효과 즉 성과에 관한 연구결과들이 실제적 경험을 통해 진로교육의 개선점을 도출될 때 교육과정으로서 학생선수 진로교육의 위상이 굳건해 질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고등학교 학생선수 관련 연구들이 거의 양적 설문으로만 수행되어 고등학교 학생선수들에게 제공되는 진로교육 개입 성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제공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제 진로교육 개입 성과에 관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학생선수들의 진로교육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고등학교 학생선수들의 진로교육 개입 성과를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생선수들의 시간적, 환경적 제약을 고려하여 이들을 한 장소에 모으고 체육진로에 대한 집중성과 연계성을 확보하여 진로교육 특강을 실시하였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가정에서의 진로교육보다 학교에서 경험하는 진로교육이 진로교육 개입 성과 변인을 보다 더 예측하고(이지연, 2007). 구조화된 진로 워크숍이나 집단 지도가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Whiston, Brecheisen, & Stephens, 2003), 학교에서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진로워크숍을 실시한 후, 진로교육 경험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합의적 질적연구(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CQR) 방법을 사용하였다. CQR은 최근 많이 사용되는 질적 연구 방법론 중 하나로 타당성과 신뢰성 구축을 위해 평정자와 감사자로 구성된 합의 팀이 전 과정에 참여한 후 결과를 추론하여 이론을 도출한다는 장점을 가진다(Hill, 2012). 이러한 진로교육 개입의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자료들은 고등학교 학생선수들이 자신과 자신의 주변에 있는 직업 세계의 이해를 확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학교 전문 상담교사나 진로진학 상담 교사들이 효과적인 진로 상담을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며, 학생선수들의 진로교육 및 지도의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고등학교 학생선수 12명을 대상으로 유목적적 표집을 이용하였다. 진로교육 특강을 실시한 후 고등학교 교사들에게 특강에 참여한 학생 중에서 면담대상을 추천받았고, 면담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학년, 성별, 종목 등의 변수들을 고려(Byrne, 2004)하여 다양한 학생들을 선발하였다. 교사들로부터 추천받은 연구 참여자는 남학생 5명, 여학생 7명이었다. 학년별로는 1학년

표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 번호 | 이름 | 성별 | 학년 | 성적 | 교우관계 | 적응도 | 종목 | 운동수행수준 | 은퇴후장래희망 |
|----|-----|----|----|----|------|-----|-----|--------|---------|
| 1 | 고00 | 남 | 3 | 중상 | 원만 | 양호 | 육상 | 중 | 체육교사 |
| 2 | 허00 | 남 | 1 | 상 | 원만 | 양호 | 육상 | 중 | 체육교사 |
| 3 | 김00 | 남 | 2 | 상 | 원만 | 양호 | 볼링 | 상 | 체육교사 |
| 4 | 강00 | 여 | 2 | 상 | 원만 | 양호 | 체조 | 하 | 체육공무원 |
| 5 | 조00 | 남 | 1 | 중상 | 원만 | 양호 | 태권도 | 중 | 체육교사 |
| 6 | 윤00 | 여 | 1 | 중상 | 원만 | 양호 | 역도 | 상 | 체육교사 |
| 7 | 이00 | 여 | 3 | 상 | 원만 | 양호 | 역도 | 중 | 체육교사 |
| 8 | 이00 | 여 | 3 | 중 | 원만 | 양호 | 유도 | 중 | 체육교사 |
| 9 | 이00 | 여 | 3 | 중 | 원만 | 양호 | 유도 | 중 | 체육교사 |
| 10 | 강00 | 남 | 1 | 상 | 원만 | 양호 | 육상 | 상 | 체육교사 |
| 11 | 문00 | 여 | 1 | 중 | 원만 | 양호 | 역도 | 하 | 자영업 |
| 12 | 고00 | 여 | 1 | 중 | 원만 | 양호 | 유도 | 중 | 체육교사 |

6명, 2학년 2명, 3학년 4명이었으며 종목은 육상, 볼링, 체조, 태권도, 역도, 유도 등으로 다음 <표 1>과 같다.

2. 면담질문지 구성

면담은 심층적이고 풍부한 자료를 획득하는 방법이다(Fontana & Frey, 2005). 그 중에서 CQR은 면담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이 일관된 질문 자극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진로교육 개입 성과와 고등학교 학생선수의 진로교육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고찰하여 면담 질문을 작성하고 전문가회의를 거쳐 고등학교 학생선수의 인지적, 행동적, 정서적 측면을 반영하는 반구조화 면담질문지를 <표 2>와 같이 구성하였다. 이 연구에서 CQR을 분석방법으로 채택한 이유는 당사자들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얻은 자료를 분석하므로 고등학교 운동선수들이 지각하는 진로경험을 보다 풍부하

고 심층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사전에 작성된 반구조화 질문지의 사용으로 형식적인 질문과 답보다는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대화를 진행하였고, 연구자와 학생선수들의 의견 교환하기 위해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진행하였다(Mason, 2002).

3. 면담진행

면담은 2016년 2월 18일부터 3월 17일까지 2차에 걸쳐 진행하였다. 면담 과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면담 진행 매뉴얼을 만들어 순서에 따라 진행하였다. 처음 면담한 사례를 녹취하고 내용을 전사하고, 숙독하는 과정을 거친 후 다음 면담을 진행하는 과정으로 일관성을 높였다.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학교 또는 훈련장소를 방문하여 진행하였다.

표 2. 면담 질문

| 연구문제 | 주요 하위질문 |
|--------|--|
| 인지적 성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교육을 받은 후 자기 자신에 대해 얼마나 알게 되었나요? · 진로교육을 받을 후 원하는 직업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알게 되었나요? · 진로교육을 받은 후 가치관이 어떻게 변화되었나요? · 진로교육을 받은 후 목표의식이 어떻게 변화되었나요? |
| 행동적 성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교육을 받은 후 원하는 직업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했나요? · 진로교육을 받은 후 지원하는 분야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이 있었나요? · 진로교육을 받은 후 진로와 관련된 학업수행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
| 정서적 성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교육을 받은 후 어떤 감정을 느꼈나요? · 진로교육을 받은 후 진로교육 경험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나요? |

사전에 협조를 구한 교사의 안내에 따라 학교의 면담 장소에서 기다렸고, 연구참여자가 교사의 안내를 받아 연구자에게 찾아왔다.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 녹음 관련 사항, 면담 도중 참여 중단 권리를 포함한 연구참여자의 권리 등을 설명하였다. 연구자료는 연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연구결과에는 실명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도 밝혔다. 몇몇을 제외한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초면이었기 때문에 바로 면담을 시작하지 않고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한 rapport 형성으로 친밀한 감정이나 상호간에 대한 이해를 시도했다. 연구참여자는 서면 동의서에 서명한 후 50분~70분간 면담을 실시하였다. 모든 면담내용은 연구참여자의 동의하에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녹취하였다. 기본적으로 반구조화된 면담지를 활용하고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대화가 진행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면담을 마친 뒤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였다.

4.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합의적 질적연구 방법의 지침(Hill, Knox, Thompson, Williams, Hess, & Ladany, 2005)을 참고하였다. 합의팀은 연구자를 포함한 세 명으로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1)영역 만들기: 두 명의 평정자들은 개별적으로 각 사례의 유사한 내용을 묶은 후 가장 적합한 영역에 대해 모여 합의하였다. 영역들 간의 구분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2)중심개념 구성하기: 두 명의 평정자들은 개별적으로 영역내용을 중심개념으로 요약했다. 자료자체의 의미에 충실하게 그리고 간결하게 중심개념을 도출한 후에 함께 모여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논의하였다. 또한 감사자가 감수과정을 통해 평정자들이 합의한 영역과 중심개념을 검토하였다. 원자료가 적절한 영역에 위치하였는지, 모든 중요한 자료가 중심개념 속 에 나타났는지를 점검한 후에 평정자들에게 피드백을 전달하고 재차 합의하였다. 3)교차분석 실시하기: 교차분석은 영역에 대한 중심개념을 범주화하는 과정으로 영역에서 중심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범주를 최종적으로 확정한 뒤 각 사례에서 나타나는 빈도를 표시한다(Hill et al., 2005). 본 연구에서는 12개의 사례의 각각의 영역과 중심개념을 종합하고 평정자들과의 합의과정을 통해 영역별로 구성된 중심내용의 빈도수를 측정하였다. 추출된 하위범주들이 몇 %의 사례에 적용되느냐에 따라 일반적(general, 90% 이상), 전형적(typical, 50-90% 미만), 변동적(variant, 50% 미만)으로 구분하였다. 1~2 사례에만 적용되는 하위 범주들은 표본을 설명하는 주요자료로 간주할 수 없으므로 제거하였다. 본 사례가 12사례이므로 11명 이상에서 나타난 경우를 '일반적', 6개~10개 사례에서 나타난 경우는 '전형적', 5사례 미만에서 나타난 경우를 '변동적'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재감수과정을 통해 감사자가 교차분석 결과를 검토하고 피드백을 제공하였고, 평정자들은 그 결과를 가지고 재합의하였다.

전문가회의는 도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2016년 3월, 4월 중 총 2회에 걸쳐 3인(스포츠교육학 박사 2명, 현직 체육교사 1명)이 진행하였다. 1차 전문가회의에서는 항목별로 세세히 분석하면서 현실성을 미처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나 중복되거나 삭제할 부분을 찾아내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2차 전문가회의에서는 최종본을 도출하기 위해서 더욱 세밀한 검토와 수정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진로교육에 참여한 고등학교 학생선수들의 진로교육 개입 성과를 결정하는 인지적, 행동적, 정서적 요인에 관한 정보들을 도출하였다.

5. 연구의 타당도

본 연구에서는 면담자에게 자료분석 결과를 보내어

자료 해석의 타당도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구성원간 검토(member check)를 하였고, 면담에 함께 참여했던 스포츠교육학 박사 2명, 현직 체육교사 1명에게 자료해석의 타당도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동료연구진 검토(Guba & Lincoln, 1989)를 하였으며,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연구의 타당도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다각도 분석법(triangulation)을 사용하였다(Denzin & Lincoln, 1998).

Ⅲ. 결 과

본 연구의 목적은 고등학교 학생선수들의 진로교육 개입 성과를 탐색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험들은 귀납적 내용분석되어 직접인용문과 함께 제시하였다. 더불어 학생선수 진로교육 개입 성과에 대한 개념적 모형을 구축했다.

1. 진로교육 개입 성과

1) 인지적 성과

고등학교 학생선수들의 진로교육 경험에 대한 인지적 성과 영역은 <표 3>과 같이 '자기이해', '직업이해', '가치인식', '목표의식'의 4개의 범주로 구성되었다. 자기이해 범주에서 일반적인 하위범주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게 됨(12사례)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를 알게 됨(11사례), 나에게 맞는 직업을 알게 됨(10사례), 나의 가치를 알게 됨(11사례)이었다.

표 3. 인지적 성과

| 범주 | 하위범주 |
|------|---|
| 자기이해 |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게 됨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알게 됨 나에게 맞는 직업을 알게 됨 나의 가치를 알게 됨 |
| 직업이해 | 다양한 직업에 대해 알게 됨 직업에 대한 선입견이 없어짐 직업들 간의 연관성을 이해함 |
| 가치인식 | 내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알게 됨 타분야 경험의 필요성을 인식 |
| 목표의식 | 뚜렷한 목표가 생김 도전의지가 생김 구체적인 진로 계획을 세움 |

고등학교 학생선수들은 운동이야 전공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 있었지만 교육을 듣고 나서 체육 말고 다른 직업들도 나에게 맞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좋았다고 언급했다.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잘하지 못하면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했다. 다음은 면담과정에서 인용된 내용이다.

제가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을 좋아하고 봉사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소한 것들도 하찮게 생각했던 것들도 교육을 듣고 나니까 달라진 것 같아요. 나 자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어요(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게 됨: 2번)

진로교육을 받으면서 제가 무엇을 잘하는지 알게 되었어요. 리더십이 있어서 앞에서 사람들을 이끌어 갈 수 있고, 배려심이 깊다는 점을 알게 되었어요(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알게 됨: 5번)

직업이해 하위범주에서 일반적인 하위범주는 다양한 직업에 대해 알게 됨(12사례), 직업에 대한 선입견이 없어짐(11사례) 이었다. 전형적인 하위범주는 직업들 간의 연관성을 이해함(10사례) 등으로 정리되었다. 학생선수들은 기존에 직업에 대한 선입견까지 없어져서 몸으로 하는 직업뿐만이 아닌 다른 쪽으로도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고 진술했다. 또한 한 직업이 다른 직업들과 연관되어 있음을 깨달아서 자신이 희망하는 진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는 진로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했다.

전에는 체육선생님, 지도자 이렇게만 알았는데 진로교육을 통해 여러 사람들의 직업을 관심있게 보게 되었어요. 스포츠 해설가, 에이전트, 공무원 등 정말 많은 직업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어떤 직업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요(다양한 직업에 대해 알게 됨: 1번).

가치인식 범주에서 일반적인 하위범주는 타분야 경험의 필요성을 인식함(12사례), 전형적인 하위범주는 내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알게 됨(10사례) 등으로 나타났다. 학생선수들은 무슨 대학을 가는 것보다 내가 커서 무엇을 할지가 더 중요한 것을 알게 되었다고 언급했다. 목표의식 범주에서 일반적인 하위범주는 도전 의지가 생김(12사례), 뚜렷한 목표가 생김(11사례)이었다. 전형적인 하위범주는 구체적인 진로계획을 세움(10사례) 등이 나타났다. 학생선수들은 대학이 끝나라 생각했었는데 이젠 그 이후의 직업까지 생각하며 목표가 생겼다고 했다. 목표를 꿈이 아닌 현실로 만들기 위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다고 진술했다.

2) 행동적 성과

고등학교 학생선수들의 진로교육 경험에 대한 행동적 성과에 대한 연구결과는 <표 4>과 같이 나타났다. 행동적 성과 범주에서는 정보탐색, 접촉시도,

학업수행의 3개의 하위범주로 확인되었다. 정보탐색 범주에서 일반적인 하위범주는 인터넷 검색으로 정보를 얻음(12사례)이었다. 변동적인 하위범주는 관련서적을 읽음(3사례)으로 정리되었다. 학생선수들은 원하는 직업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알고 싶어 인터넷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직업을 알아보고, 관련 사이트에 들어가 채용과정 입사조건 소속기관 등 여러 정보를 탐색하고, 블로그 등의 여러 사람들의 경험담을 통해 간접 체험을 하고 있었다.

접촉시도 범주에서 전형적인 하위범주는 선생님에게 조언을 들음(10사례), 가족과 함께 진로를 의논함(10사례), 지인에게 물어봄(10사례), 해당 직업 종사자에게 조언을 들음(9사례) 등으로 정리되었다.

고등학교 학생선수들은 진로교육 후에 받은 설문지 결과를 가지고 부모님과 미래에 대해서 자주 얘기했다고 언급했다. 부모님에게 조언을 들으며 진로에 대해 좀 더 고민해보고 이 직업이 정말 나한

표 4. 행동적 성과

| 범주 | 하위범주 |
|------|--|
| 정보탐색 | 인터넷 검색으로 정보를 얻음 관련서적을 읽음 |
| 접촉시도 | 선생님에게 조언을 들음 가족과 함께 진로를 의논함 지인에게 물어봄 해당 직업 종사자에게 조언을 들음 |
| 학업수행 | 공부에 흥미가 생김 적극적으로 수업참여 필요한 과목을 공부함 나한테 맞는 공부법 알아감 |

테 맞나 얘기도 하고 다시 직업에 대해 잘 알아보게 되었다고 했다. 또한 미래에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 어떤 과를 가야하는지, 또 그 과에 가기위해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지 도청실업팀 선수들한테 물어봐서 실업팀에 대해 많은 정보를 얻었다고 했다.

제가 직업을 정했을 때 갈 수 있는 대학의 학과들을 확인하고 어느 대학에 가야 가장 이 진로를 성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선생님께 상담신청하고 자주 물어보고 있어요. 원하는 직업이 있는데 그 과정을 들으니 좀 머리가 복잡했어요. 선생님이 포기하지 말라고 응원해주시니 심적으로 큰 힘이 있었어요(선생님에게 조언을 들음: 1번).

학업수행 범주에서 일반적인 하위범주는 적극적으로 수업참여(11사례)였다. 전형적인 하위범주는 공부에 흥미가 생김(10사례), 필요한 과목을 공부함(10사례), 나한테 맞는 공부법을 알아감(9사례) 등으로 정리되었다. 전에는 무턱대고 공부를 하니 집중도 안 될뿐더러 학업수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공부에 대한 흥미도 떨어져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고 했다. 그런데 진로교육을 듣고 나서는 공부에도 흥미가 생기고 자신에게 필요한 과목이 뭔지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고 했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과목을 차근차근 공부하게 되었다고 언급했다.

아무래도 공부를 하는 시간보다는 운동을 하는 시간이 많아서 학업에 소홀했죠. 수업시간에 잠도 많이 자고 수업을 집중해서 듣지 않았죠. 진로

교육을 받은 이후부터는 평소와 달리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있어요. 내 꿈을 위해 집중하고 수업을 잘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체육교사가 되기 위해서 나 자신부터 성실하고 모범되게 학교생활을 하고 있어요. 학업에도 더 신경써서 미래의 나의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팁과 노하우를 알려주고 싶어요(적극적으로 수업참여: 3번).

3) 정서적 성과

고등학교 학생선수들의 진로교육 경험에 대한 정서적 성과에 대한 연구결과는 <표 5>과 같이 나타났다. 정서적 성과 범주에서는 정서안정, 개입만족의 2개의 하위범주로 확인되었다. 정서안정 범주에서 전형적인 하위범주는 진로부담에서 벗어남(9사례), 반복된 일상의 지겨움이 사라짐(8사례), 진로라는 말이 편안하게 느껴짐(6사례) 등으로 정리되었다. 학생선수들은 지금 시기가 진로를 결정하는데 가장 힘들고 복잡하고 예민한 시기라고 했다.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잘하지 못하면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나마 잘하는 게 운동밖에 없어서 내세울 것도 없고, 나 자체가 한심해 보여 우울했다고 한다. 진로라는 말 자체가 웬지 무겁고 복잡하고 거부감이 들고, 시간이 마냥 촉박해서 늘 초조하고, 미래만 생각하면 답답함에 부담감과 압박감으로 갈피를 못 잡고 있었는데 직업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고 나니 마음이 안심이 되었다고 했다.

학업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보다는 내 미래에 대한 길잡이라는 생각을 하니 무겁게만 생각했던 학

표 5. 정서적 성과

| 범주 | 하위범주 |
|------|---------------------|
| 정서안정 | 진로부담에서 벗어남 |
| | 반복된 일상의 지겨움이 사라짐 |
| | 진로라는 말이 편안하게 느껴짐 |
| 개입만족 |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어서 좋았음 |
| | 진로교육 개입에 대해 만족함 |
| | 진로교육 개입을 수용하게 됨 |

업에서 벗어났어요. 이제까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반복되는 일상의 지겨움이 사라져서 좋아요. 한번뿐인 인생 지겹다고 막 살지 말고 뜻깊게 살아야겠다는 걸 느꼈어요(반복된 일상의 지겨움이 사라짐: 12번).

이젠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진로라는 말이 편안하게 느껴져요. 더 열심히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는 느낌... 이젠 생각보다 진로를 선택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원하는 길을 찾도록 조명이 되어준 것 같아요(진로라는 말 자체를 받아들임: 1번).

개입만족 범주에서 일반적인 하위범주는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어서 좋았음(12사례), 진로교육 개입에 대해 만족함(12사례), 진로교육 개입을 수용하게 됨(11사례)으로 정리되었다.

학생선수들은 친구들과 함께 진로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진로에 대해 생각하고 의논하고 대화한 것이 좋았다고 했다. 또한 마음을 열고 조언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게 된다면 자신의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운동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진로교육 경험은 거의 받

지 못하다보니 직업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면서 운동시간외에 여러 가지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2. 진로교육 개입 성과에 대한 개념적 모형

고등학교 학생선수 진로교육에 관련된 선행연구들과 본 연구결과는 몇 가지 일반적인 진로교육 개입 성과에 대한 원리를 다음과 같이 제공해주고 있다. 진로교육 개입은 다양한 성과 유형으로 나타난다. 진로교육 개입 성과는 개인적 영역(성별, 학교급별)과 환경적 영역(가정환경, 학교환경)에서 상호작용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진로교육 개입 성과에 대한 구성개념은 다차원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이런 일반적 원리에 따라 본 연구는 <그림 1>과 같이 개념적 모형을 구축하였다. 진로교육 개입 성과는 인지적, 행동적, 정서적 영역의 역동적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되는 다차원적 과정으로 정의되며 기본적으로 영역, 범주, 하위범주로 구성된다. 잠재적 진로교육 개입 성과는 크게 인지적, 행동적, 정서적 성과 영역으로 범주화된다. 인지적 성과 영역에는 자기이해, 직업이해, 가치인식, 목표의식의 범주로 분류된다. 행동적 성과 영역에는 정보탐색, 접촉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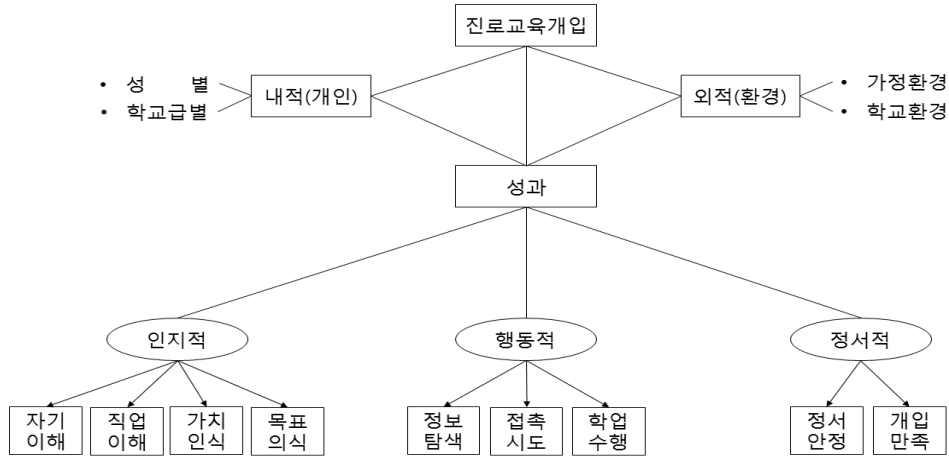


그림 1. 진로교육 개입 성과에 대한 개념적 모형

도, 학업수행의 범주로 분류된다. 정서적 성과 영역에는 정서안정, 개입만족의 범주로 분류된다. 마지막으로 이 모형은 개인의 잠재적 진로교육 개입 성과에 대한 요인들이 단계에 따라 변화한다고 전제한다. 예를 들면 진로교육 개입 초기단계에서 요구되는 진로교육 개입 성과 요인들과 중기 혹은 후기단계에서 요구되는 진로교육 개입 성과 요인들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IV. 논의

본 연구는 고등학교 학생선수들의 진로교육 경험에 따른 진로교육 개입 성과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고등학교 학생선수 12명을 대상으로 개별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대상 학생선수들의 응답 내용은 3개의 영역 9개의 범주, 28개의 하위범주로 정리되었으며 주요 연구결과와 그에 따른 시사

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지적 성과 영역에서 일반적인 하위범주로 나타난 것은 자기이해 범주에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게 됨, 직업이해 범주에서 다양한 직업에 대해 알게 됨, 가치인식 범주에서 타분야 경험의 필요성을 인식함, 목표의식 범주에서 도전의지가 생김이었다. 이는 고등학교 학생선수들의 상당수가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으며, 뚜렷한 목표 없이 맹목적으로 운동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진로교육을 통해 고등학교 학생선수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과 관련 직업을 이해하게 하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며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를 인식시켜 주었다는 것은 진로발달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하였다(Lent, Brown, & Hackett, 2002; Super, 1990). 고등학교 학생선수들이 운동에만 충실하다가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만나면 진

로방향을 잃을 수 있으므로 자신의 흥미와 잠재능력에 적합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김재철 외, 2011; 박완성, 2007; 한상근, 2009).

둘째, 행동적 성과 영역에서 일반적인 하위범주로 나타난 것은 정보탐색 범주에서 인터넷 검색으로 정보를 얻음, 학업수행 범주에서 적극적으로 학업에 참여하게 됨이었다. 고등학교 학생선수들은 진로교육 후 웹사이트, 커리어넷, 위크넷을 통해 원하는 직업과 관련된 정보를 얻고 있었다. 여러 직업에 대한 정보를 찾으면서 가장 관심있고 유심히 보았던 것은 직업간의 연봉차이, 자격증 시험 경쟁률, 학력조건 등이라고 진술했다. 학생선수들은 주요타자(선생님, 가족, 지인, 직업종사자 등)와의 접촉을 시도하며 혼자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조언을 얻고 있었다. 학업수행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변화가 일어났다고 언급한 것을 고려해보면 다양한 정보의 제공은 진정한 학생선수로 변화하게 한 기회가 된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정서적 성과 영역에서 일반적인 하위범주로 나타난 것은 개입만족 범주에서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어서 좋았음, 진로교육 개입에 만족함 이었다. 전형적인 하위범주에서는 진로부담에서 편안해짐이 나타났다. 그동안 어떻게 어디서부터 무엇을 시작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는데 진로교육을 받은 후에는 하고 싶은 일이 생겼고, 모든 일에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뀌었다고 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하다가는 직업이고 뭐고 백수생활만 하겠다라는 생각에 긴장이 되고 미래까지 걱정하게 되었다고 언급했다. 높은 수준의 불안은 진로탐색이나 준비행동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고(주연희, 이지연, 2014), 학업에 대한 낮은 자신감은 전체적인 삶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문제가 정서적 문제와 깊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진로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서문제해결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선행연구(Krumboltz, 1993; Saka & Gati, 2007; Tracey, & Soresi, 2014; Wilkims, Santilli, Ferrari, Nota, Tracey, & Soresi, 2014) 결과와 일관된 것으로 이들에게 막연한 불안을 현실적인 진로 목표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도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흥미로운 부분은 일반학생들이 진로교육 경험에 대해 일방적인 내용전달만 있고 개별적인 진로지도 요구가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정도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과는 달리(이종범, 정철영, 2001), 학생선수들은 그동안 진로교육의 기회가 적었기 때문에 이번 진로교육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어느 정도 구체화할 수 있어 큰 의미가 있었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특히 학생선수들이 교사의 우호적인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는 본 연구 결과는 교사의 우호적인 태도가 진로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선행연구 결과(Misbah et al., 2015)를 지지하고 있었다. 학생선수들은 좋은 성과가 있으면 같이 기뻐해주고, 포기하고 싶을 때나 운동이 안 될 때 옆에서 응원이나 격려의 말을 많이 해주는 교사를 깊이 신뢰하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인터넷으로 얻는 정보보다는 교사로부터 얻는 정보를 더 의존하고 있었다. 교사들이 학생선수들의 진로지도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진로상담

교사의 인원을 늘리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선행연구(Poulter, 2006)에서 진로문제에 있어서 부모님 중 아버지의 영향이 크다고 제시한 것과는 달리 고등학교 학생선수들의 진로에는 부모님 두 분 다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두 분 중 운동경험이 있으신 분, 같이 있는 시간이 많은 분의 영향이 더 크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진로교육 후 가족과 함께 진로를 상의하였다는 것을 진술하였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부모님과의 애착형성이 강하게 표출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 제일 잘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믿음이 크다고 했다. 운동에 필요한 물품까지 지원해주셔서 지금까지 열심히 할 수 있었으므로 성공을 해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다고도 진술했다. 전반적으로 학생선수들은 진로교육 개입에 관해서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일반학생들은 개인지도를 선호하며 진로개입에 있어 다소 부정적인 반면(이종범, 정철영, 2001), 학생선수들은 이젠 점점 사회로 나아가야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중학교 때와는 달리 고등학교에서 받은 진로교육은 흥미를 유발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고 만족한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결과는 발달수준이 올라갈수록 진로교육 개입에 더 만족한다는 선행연구(이건남, 2013) 결과를 입증했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는 고등학교 학생선수의 진로교육 개입 성과는 인지적, 행동적, 정서적 성과로 정의될 수 있으며 학생선수로서 경험하는 진로와 관련된 고충을 학생선수들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아울러 학생선수들이 미래의 진

로목표에 의미를 부여하며 자신의 특성에 알맞은 진로를 선택하도록 교과과정과 진로교육의 연계성을 가진 지도와 상담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V. 결론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고등학교 학생선수의 진로교육 개입 성과를 탐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고등학교 학생선수들의 진로교육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할지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해 줄 것이라 기대되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진로교육 개입의 인지적 성과는 자기이해, 직업이해, 가치인식, 목표의식으로 도출되었다. 둘째, 진로교육 개입의 행동적 성과는 정보탐색, 접촉시도, 학업수행으로 도출되었다. 셋째, 진로교육 개입의 정서적 성과는 정서안정, 개입만족으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이론적, 실제적으로 중요한 시사점을 도출했지만 몇 가지 제한점과 이에 대한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일부 고등학교를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한 결과이기 때문에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진로교육 개입 성과 요인이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성과 변인을 토대로 학생선수들에게 적합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마련하고, 이러한 진로교육 개입 성과는 발달적 관점에서 1회성이 아닌 종단적인 연구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반학생과 학생선수의 다른 점이 일부 도출되었으므로 일반학생

과 학생선수의 진로교육 개입 성과 차이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권민정, 유정애 (2014). 비인기종목 고등학교 학생 선수의 진로탐색 유형 탐구. **한국여성체육학회지**, 28(1), 101-116.
- 권민정, 유정애, & 전선훈. (2013). 학생선수의 진로 개발 역량 수준과 차이 분석. **한국체육학회지**, 52(5), 349-362.
- 길임주 (2005). 대학생의 진로결정에서의 성차와 사회도덕적 성숙도. **아동교육**, 14(1), 21-36.
- 이종범, 정철영 (2001). 고등학교에서의 진로검사 도구 활용에 관한 연구. **진로교육연구**, 13(1), 203-226.
- 김종만, 이상렬, & 조준현 (2010). 고등학교 유도 선수의 자아존중감이 진로의식 성숙에 미치는 영향. **대한무도학회지**, 12(3), 173-184.
- 김재철, 황매향, & 김아영 (2011). 체험활동과 진로성숙 간의 관계에서 긍정적 자아관과 내적 직업가치관의 매개효과. **진로교육연구**, 24(1), 1-23.
- 김현태, 김지태, & 김은성 (2015). 고교야구선수의 자아정체감, 스포츠자신감, 합리적 진로의사결정의 구조모형. **한국체육학회지**, 54(1), 187-199.
- 문호준, 이승희 (2010). 상권: 청소년체육 편: 고등학교 운동선수의 운동경험특성과 자기관리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체육학회지**, 42(1), 559-570.
- 박완성 (2007). 중·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종단적 연구. **진로교육연구**, 20(4), 87-101.
- 박종진, 박상섭, & 백두환 (2015). 고교 검도선수들의 부모지지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무도학회지**, 17(2), 17-32.
- 손환, 홍은아 (2014). 한국형 학생선수 진로교육 가이드라인 개발. **한국체육학회지**, 53(3), 621-633.
- 송영숙 (1998). **고등학생의 진로포부 및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 분석**.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안창식 (2004). 탁구선수들의 진로교육 및 진로상담에 관한 연구. **한국스포츠리서치**, 15(50), 1381-1391.
- 유정애 (2014).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른 중학교 체육진로교육의 방향과 과제 탐색. **한국체육학회지**, 53(6), 235-246.
- 이건남 (2013). 중·고등학생의 진로교육에 대한 만족도: 직업심리검사 활용을 중심으로. **초등교과교육연구**, 18, 117-131.
- 이규일, 허창혁, & 류태호(2011). 중·고등학교 학생선수들의 중도탈락 원인 특성 및 개선방안. **체육과학연구**, 22(3), 2189-2202.
- 이도윤, 김지태 (2014). 고교 야구선수의 부모양육태도와 진로자기효능감 및 진로의사결정의 관계. **한국사회체육학회지**, 56(1), 685-695.
- 이승희, 전태준 (2006a). 운동선수의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요인의 관계.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19(1), 171-184.

- 이승희, 전태준 (2006b). 중, 고등학교 운동선수의 운동능력과 의사결정 및 진로결정효능감의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45(6), 133-144.
- 이양구, 권형일 (2015). 스포츠교육과 진로교육의 연계방안: 계층화 분석법을 활용한 학생선수의 체육, 스포츠 진로결정유형 분류 방안 탐색.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22(2), 41-57.
- 이지연 (2007). 청소년의 진로개발 성과 모형에 관한 연구. **진로교육연구**, 20(2), 129-150.
- 임새미, 이근모 (2015). 학생테니스선수의 운동수행수준이 성취목표성향, 진로준비행동 및 진로장애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인문사회과학**, 54(1), 67-81.
- 장순웅, 김지태, & 김영준 (2013). 소프트볼 선수들의 진로장벽, 진로스트레스, 진로발달의 인과관계. **한국체육학회지-인문사회과학**, 52(1), 325-337.
- 장원섭 (2007). 맥락 중심의 평생 진로교육 제안. **진로교육연구**, 20(2), 1-13.
- 정성현 (2005). 육상지도자의 리더십 유형과 중, 고등학교 육상선수의 진로결정효능감의 관계.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18(1), 103-117.
- 주연희, 이지연. (2014). 고등학생의 완벽주의와 진로결정 수준과의 관계에서 불안과 우유부단의 매개효과. **청소년시설환경**, 12(4), 17-29.
- 최윤정 (2012). 진로상담 슈퍼비전 구성요소에 관한 고찰. **상담학연구**, 13(2), 455-477.
- 한상근 (2009). 직업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중 고등학생의 요구 분석. **진로교육연구**, 22(4), 19-36.
- 한태룡, 정영린, & 서희진 (2010). 학생선수의 진로경로 실태분석.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23(2), 135-148.
- Arum, R., & Hout, M. (1998). *The early returns: The transition from school to work in the United States. From school to work: A comparative study of educational qualifications and occupational destinations*, 471-510.
- Brown, S. D., & Ryan Krane, N. E. (2000). *Four (or five) sessions and a cloud of dust: Old assumptions and new observations about career counseling*. In S. D. Brown & R. W. Lent (Eds.), *Handbook of counseling psychology* (3rd ed.) (pp.740-766). NY: John Wiley.
- Byrne, B. (2004). *Qualitative Interviewing*. In C.Seale(Eds.), *Researching society and culture*. London: Sage.
- Denzin, N. K., & Lincoln, Y. S.(1998). *Strategies of Qualitative Inquiry*. Thousand Oaks, CA: Sage.
- Fontana, A., & Frey, J. H.(2005). *The Interview*. In N.K. Denzin & Y. Lincoln(Eds.),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pp. 50-60). Sage California.
- Guba, E. G., & Lincoln, Y S. (1989). *Fourth generation evaluation*. Newbury Park. CA: Sage.
- Hill, C. E. (2012).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A Practical resource for*

- investigating social science phenomena*.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y Association.
- Hill, C. E., Knox, S., Thompson, B. J., Williams, E. N., Hess, S. A., & Ladany, N. (2005).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An updat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2), 196-205.
- Hollinger, C. L. (1984) The impact of gender schematic processing on the self directed reach responses of gifted and talented female adolesc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4, 15-2
- Huffman, M. L., & Torres, L. (2001). Job search methods: Consequences for gender-based earnings inequalit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8, 127-141.
- Ketterson, T. U. (2000). *The role of attachment style in vocational exploration and decision making*.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61. 2185A(University Microfilm No. 99-74, 991).
- Krumboltz, J. D. (1993). Integrating career and personal counseling.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2, 143-148.
- Lambert, M. J., Vermeersch, D. A. (2008). *Measuring and improving psychotherapy outcome in routine practice*. In S. D. Brown & R. W. Lent (Eds.), Handbook of Counseling Psychology (4th ed., pp.233-248). NY: Wiley.
- Lee, H. Y., & Hughey, K. F. (2001). The relationship of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parental attachment to the career maturity of college freshmen from intact families.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27(4): 279-293.
- Lent, R. W., Brown, S. D., & Hackett, G. (2002).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In D. Brown & Associate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4th ed., pp. 255-311). San Francisco: Jossey-Bass.
- Mason, J.(2002). *Qualitative Researching* (2nd ed.). Sage, London.
- Misbah, Z., Gulikers, J., Maulana, R., & Mulder, M. (2015). Teacher interpersonal behaviour and student motivation in competence-based vocational education: Evidence from Indonesia.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50, 79-89.
- Oliver, L. W. & Spokane, A. R. (1998). Career intervention outcome: What contributes to client gai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5, 447-462.
- Poulter, S. B. (2006). *The father factor: How your father's legacy impacts your career*. New York: Prometheus Books.
- Saka, N. & Gati, I. (2007). Emotional and

- personality-related aspects of persistent career decision-making difficulti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1, 340-358.
- Sharf, R. S. (2006). *Applying Career Development Theory to Counseling*, 4th eds. Connecticut: Cengage Learning
- Spokane, A. R., & Oliver, L W. (1983). *Outcomes of vocational intervention*. In S. H. Osipow & W.B. Walsh (Eds.), *Handbook of vocational psychology*
- Super, D. E. (1990). *A life-span, life-space to career development*. In D. Brown, L. Brooks, & others (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Applying contemporary theories to practice*(2nd ed, pp. 197-261).
- Taylor, K. M. (1979). *The relationships among vocational indecision, fear of success, and locus of control as moderated by sex and abili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Ohio state University, Columbus, OH.
- Teachman, J. D., Paasch, K., & Carver, K. (1996). Social capital and dropping out of school earl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773-783.
- Whiston, S. C. (2001). Selecting career outcome assessments: an organizational schem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9(3), 215-228.
- Whiston, S. C., Brecheisen, B. K., & Stephens, J.(2003). Does treatment modality affect career counseling effectivenes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2, 390-410.
- Whiston, S. C., Sexton, T. L., & Lasoff, D. L. (1998). Career intervention outcome: A replication and extens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 150-165.
- Wilkins, K. G., Santilli, S., Ferrari, L., Nota, L., Tracey T. J., Soresi, S. (2014). The relationship among positive emotional dispositions, career adaptability, and satisfaction in Italian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5(3), 329-338.

An Investigation of Career Intervention Outcomes from High School Student-Athlete By Using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Approach

Han-Si Wan(Chung-Ang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plore career intervention outcomes from high school student-athletes. Based on the Whiston(2001)'s diagram of career intervention outcome, it investigated significance of career educations in various areas provided to student-athletes. It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12 student-athletes by individual and collected materials. As an analysis result conducted by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CQR) approach, the career intervention outcomes from high school student-athletes can be classified into 3 areas, 9 categories, and 28 sub-categories.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In the cognitive performance area, main factors are self-understanding, understanding on vocations, value cognition, and goal awareness. In the behavioral performance area, main factors are information search, attempt to contact, and learning performance. In the emotional performance area, emotional stability and satisfaction with intervention were induced as main factors. Also, it was found that cognitive, behavioral, and emotional performances should be understood interactively in a personal and environmental area. Based on the findings, this study discussed on the outcomes of career intervention committed to high school student-athletes and actual career intervention. It is anticipated that reflection of the actual experience along with theoretical analysis will be a factor to understand the career curricula of high school student-athlete in more profound way and thus to promote research activities on career education from the dynamic perspective.

Key words: high school student-athlete, career intervention outcomes,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approach

논문 접수일 : 2016. 04. 29

논문 승인일 : 2016. 06. 07

논문 게재일 : 2016. 06. 30